

초기 한국 기독교의 교육공간과 말하는 주체의 탄생*

이숙진(이화여자대학교/강사)

lucidleekr@naver.com

한글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여성들이 기독교가 마련한 교육공간을 통해 '말하는 주체'로 거듭난 경로를 추적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는 데 있다. 초기 기독교는 문자 교육을 수반한 성경공부, 연설과 토론으로 대변되는 근대적 발화양식, 간증과 방언으로 대변되는 기독교 고유의 발화양식 등 세 경로를 통해 여성을 '말하는 주체'로 세울 수 있었다. 첫째 경로는 여자사경회인데, 농어촌 지역의 여성들은 이를 매개로 문자의 세계로 진입하면서 무지와 묵종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둘째 경로는 기독교계 여성교육 기관이 마련한 연설과 토론공간이다. 이화학당의 이문회(以文會), 감리교 여자청년회인 조이스회(Joyce Chapter), 여성단체인 YWCA 등에서 여성들은 근대적 언어구사의 테크닉을 배우면서 말하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 셋째 경로는 기독교 고유의 발화양식인 간증과 방언이다. 남성 엘리트에게만 허용되었던 설교나 공중기도와 달리, 간증과 방언은 성별이나 신분의 제약을 초월하는 발화양식이다. 여성들은 적극적인 간증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엄을 확인하였고, 일종의 해체적 연설 행위인 방언을 매개로 초월적 권위에 기대어 말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이렇듯 기독교가 마련한 교육공간을 통과하면서 여성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통이 운명 탓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나 오랜 악습 때문임을 깨닫고 여성의 교육권과 재산권을 주장하는 '말하는 주체'가 되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활발했던 신여성 연구에서는 여성주체 형성의 장치였던 기독교의 영향력에 대해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초기 한국 기독교 교육공간에는 여성을 말하는 주체로 세우는 다양한 연설장치가 있었고, 이는 여성들의 공적 발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밝힌 이 글은 그간의 근대여성 연구의 지평을 보완,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제어 〉

초기 기독교, 말하는 주체, 이문회, 조이스회, 연설과 토론, 간증과 방언, 여성주체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6S1A5A2A01026302)

I. 들어가는 말

역사적으로 가부장 사회는 여성의 언권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구축해왔다. 특히 조선사회의 경우 통치이념이었던 유교가 여성의 ‘발화’를 경계하고 통제하였다. 양반가의 여성 중에는 종부(宗婦)의 경우처럼 집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한 경우가 있었지만 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여성의 말은 통제대상이었다. 경전과 여자교육서는 여성의 발화를 불온시하고 통제한 주요 장치였다. 『서경』 「목서(牧誓)」에 나오는 “암탉을 새벽에 울리지 말라.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牝雞無晨. 牝雞之晨, 惟家之索)”는 구절은 여성의 발화를 금지한 대표적인 마법이었으며, 조선 후기에 간행된 여자교육서 『여사서언해(女四書諺解)』에도 비슷한 경고가 보인다. “『시경』에서는 부인의 말이 화를 불러오는 실마리가 된다고 풍자하였으며, 『예기』는 말이 문지방을 넘어 떠돌아다니는 것을 엄격하게 경계하였다”(이숙인, 2005, 15-21)는 구절이 그것이다. 경전의 가르침은 제도과 속담을 통해 일상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칠거지악의 하나로 거론된 ‘장설(長舌)’ 혹은 ‘다구설(多口舌)’, 그리고 새덕의 부덕(婦德)으로 꼽힌 ‘병어리 삼년’이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전통사회에서 여성교육의 시작과 끝은 ‘말’ 혹은 언어에 대한 통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은 자기표현의 출구이며 자기표현은 종속에 대한 거부다. 이런 점에서 할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주체를 세우는 일이다. 개항기에 들어온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유교적 권위주의에 의해 오랫동안 묵종의 도를 강요 받았던 여성들을 ‘말하는 주체(speaking subject)’로 호명하고 다양한 발화공간을 마련하여 여성들이 묵종의 악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 글에서의 ‘발화’는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현실적인 언어 행위 자체라는 사전적 정의와 함께, 주체를 세우는 언어 행위라는 함의를 지닌 개념이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한국 기독교의 역할을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물론 지난 30여 년에 걸쳐 근대여성 곧 신여성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 정도로 축적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는 한국 근대 페미니즘의 형성을 19세기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

산된 미디어와 소비문화의 영향을 받은 초기 글로벌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파악하면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학계에서는 1898년에 나온 「여권통문(女權通文)」을 한국 여성 최초의 공적 발화로 인정하고 있는데(윤정란, 2019), 이 선언서는 “옛 도덕에 기대어 여성들에게 세상 밖의 일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규방에 갇혀 밥과 술만 짓는 것을 마땅히(居內而不言外, 唯酒食施衣)여겨 온 것”에 대한 양반가 여성들의 비수 같은 문제제기와 함께 여성 교육권 및 여학교의 실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독교 교육공간에는 「여권통문」에 앞서 여성을 ‘말하는 주체’로 세우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 논문은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공적 발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기독교가 공중기도, 간증, 방언 등 교회 고유의 종교적 발화장치를 비롯하여 미선여학교의 토론과 연설 교육 등, 다양한 공적 발화의 양식과 공간을 제공하였음에 주목한다. 공적 발화는 메시지의 전달과 수용만이 아니라 발화자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발화장치를 통해 어떠한 여성 주체가 형성되었는지 살펴본다. 요컨대 이 글은 한국 여성들이 기독교가 마련한 교육공간을 통해 ‘말하는 주체’로 거듭난 경로를 추적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말하기 공간

수용 초기부터 기독교는 신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말하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였다. 목종을 강요당해온 여성들이 근대적 의미의 ‘말하는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에는 기독교의 교육공간이 미친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1. 무지와 묵종의 세계

기독교의 여성 교육공간이 ‘말하는 주체’ 형성의 기반을 제공한 것은

기독교가 ‘책의 종교’라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기독교인의 삶의 준거는 성서다. 성서를 읽기 위해서는 글자를 알아야 하고, 입교의 한 과정인 교리문답에 통과하기 위해서도 문자의 함의를 이해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문맹자를 문자의 세계로 진입시키는 주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

물론 한국 사회의 경우 기독교 수용 이전에 문자를 매개로 자신을 구현한 여성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성을 통제하는 장치가 많았던 조선 후기에도 김호연재(1681~1722)와 김삼의당(1769~1823) 등 여성 시인이나 임윤지당(1721~1793), 강정일당(1772~1832) 등 여성 성리학자들은 탁월한 저술활동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극소수의 여성 지식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은 글을 매개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기회는커녕 평생 문자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이처럼 조선 사회에서는 한자와 한문에 능한 이들이 성리학의 지식 세계를 독점한 반면, 개항 이후 한국 사회에 들어온 기독교는 한글을 매개로 기존의 지식 체계에서 배제된 이들에게 접근하였다. 기독교는 선교 준비 단계에서부터 한글 성서번역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하층민 선교의 전략으로 채택된 한글 교육은 성서를 널리 보급하고 문맹자였던 여성들의 의식을 깨우는데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Underwood. 1911, 297). 이렇듯 개항기에 수용된 기독교는 여성들을 문자의 세계로 인도하는 동시에 여성의식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기독교가 한글의 대중화와 여성의식의 형성에 기여한 증거는 당시 여성들의 간증에서 잘 드러난다. 평양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하였던 매티 노블(Matti Noble)은 초기 전도부인의 개종 이야기를 실은 『승리의 생활(Victorious lives of early Christians in Korea)(1927)』을 펴냈는데 이 책에는 기독교를 통해 문맹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무지했던 여성들이 진리의 전달자이자 지식생산자가 되었다는 고백들이 실려 있다. “언문도 모르는 무식장이었으나 교회에서 글을 가르쳐주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김세지(Noble, 1927, 10),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회에 다니며 언문도 배우고 성경공부를 시작했다”는 김써커스(Noble, 1927, 71), “이웃집 글방에서 남자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들을 때에는 여자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탄식으로 세월을 보내던” 주

를루(Noble, 1927, 96) 등의 고백은 기독교 공간이 제공한 성서 교육을 통해 여성들이 ‘말하는 주체’로 탄생하는 과정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치아는 거의 다 빠지고 말할 때마다 남은 치아가 흔들거렸지만 그녀가 한 기도는 우리를 곧 은혜의 왕좌로 데려갔고 … 그녀는 프로그램을 잘 진행했으며 … 굳센 손과 목소리로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했다 … 회의를 이토록 우아하고 정력적으로 이끄는 이 노파가 불과 10년 전에는 입을 줄도 몰랐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 그녀는 기독교인이 된 후에 읽기를 배웠고 또 구술시험을 칠 정도로 쓰기를 잘 할 수 있었기에 우리의 성서학원을 졸업할 수 있었다(Talmage, Oct 16, 1932).

신여성들이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던 1920년대에도 한국 여성의 대부분은 무지와 문맹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평신도 여성 지도자로 성장한 교회 여성들이 문맹자를 문자의 세계로 이끄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당시 광주에서 기독교 여성단체를 조직하고 야학사업에 주력했던 김필레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녀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서울로 유학 간 남성들은 무식하다는 이유로 함께 고생한 부인을 버리고 신여성과 연애하는 풍조가 만연했다. 김필레가 야학을 개설한 주요한 이유는 소박 맞은 여성들에게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김필레, 1977, 37).

초기 여성 선각자로 지도력을 발휘했던 여성들도 기독교를 통해 문자의 세계로 진입했다. 앞서 말한 김필레는 어린 시절 자주 만났던 화이팅(Georgiana Whiting)을 비롯한 여선교사들이 자유로이 다니며 당당하게 말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당시 그녀의 시선에 비친 자신의 언니들은 여선교사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시집가서 모두 중노릇을 하고 부유한 집안 출신인 올케들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김필레는 “십칠 세만 차면 시집보낼 것”이라는 집안의 결정에 불복하고 “여자로서의 명예”를 벗어버리기 위해 “죽어라 공부”를 하였고(김필레, 1973, 182) 훗날 전국 규모의 여성단체를 설립하는 등 한국 근대여성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김필례와 함께 일제강점기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 여성 지식인으로 활동한 박인덕의 경우에도 비슷한 모습이 발견된다. 당시 동네의 유일한 교육기관인 서당은 남자아이에게만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인덕(2007, 23)은 입학에 대해 검정 바지를 입고 남자아이 스타일로 머리를 땀아 검정 댕기로 묶었을 뿐 아니라 여성적 이름인 '임덕(姪德)' 대신 남성적 이름인 '인덕(仁德)'으로 개명하였다. 요컨대 입학에 대해 '여성적 기표'를 삭제했던 것이다. 이후 박인덕은 삼승학교에 입학하였는데 기독교 학교에서는 여성적 기표를 삭제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항 이후 한국 사회에 들어온 기독교는 한글성서를 통한 문맹퇴치와 학교 설립을 통한 여성교육으로 여성들이 '말하는 주체'로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2. 문자 세계로의 진입: 사경회, 성경학교, 정규학교

19세기 말 20세기 초 선교사들은 서울이나 평양과 같은 거점 도시에 여자들을 위한 배움의 터를 열었다. 그러나 도시 이외의 농어촌이나 산촌 지역에 거주하던 여성들은 교육은커녕 학교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공립 여성 교육기관이 전무했던 당시, 하층민선교의 교두보였던 사경회(査經會)는 무지와 목종의 삶을 살고 있던 한국 여성을 문자의 세계로 이끄는 주요 장치였다(조은하, 2007, 206).

윌리엄 블레어(W. Blair, 1946, 69) 선교사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인에게 사경회는 유대인이 유월절을 지키듯이 경건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날이며, 한가한 겨울에 한 주간이나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만사를 제쳐두고 모든 교인이 교회에 모여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조직적으로 성경공부를 하는 날이다.

첫 여자 사경회는 1888년 서울 정동에서 메리 스크랜튼과 헤리엇 엘리자베스 헤론이 성경반을 조직하면서 시작되었다. 1892년에는 평양, 선천, 재령 등에서도 사경회가 열렸고, 매티 노블의 일기에는 1,300명에서 1,800명 정도의 많은 참석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북장로교 선교구역의 경우 1909년 한해에만 5만여 명이 800회 이상 사경회에 참여하였으며, 1917년~1918년에는 기독교인 117,000명 가운데 65%에 달하는

7,600명이 참석하였다(이우정, 1985).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 인원을 집계하였는지, 집계방식이 얼마나 정확한지, 참석자 중 여성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성경공부에 열정을 보였던 여성들에 대한 선교사의 기록은 차고 넘친다. 스왈렌(1907, 78) 선교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농번기 동안 보름 일정으로 열렸던 도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성들은 어린아이를 업고 짐구로 쓸 이불꾸러미를 양손에 들고 15km 이상을 걸어왔다. 이 보고서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여성들의 열망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여성사경회의 인기가 여성 선교사들의 역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교회 평신도 중에서 여성 엘리트를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선교사 질레트 블레어(Gillette Blair)의 보고서에는 단 며칠간의 교육만 받았지만 수백 리나 걸어 다니며 수많은 여성을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여성이 등장한다. 블레어(1911, 316)는 이 여성을 목격한 후 더 많은 여성 중간 지도자를 육성하여 여선교사의 동역자로 채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사경회에서 수년을 공부하고 졸업을 앞둔 여성 중에는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욕적인 여성들이 있었다. 결국 선교부의 필요와 여성들의 배움에의 열망이 합치되면서 여자성경학원이 곳곳에 설립되었다. 1909년에 개교한 원산의 엘리스 콕(1927, 143) 성경학교도 이 중 하나인데, 설립 목표는 각 교회에서 뛰어난 여성을 뽑아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특별교육 실시에 있었다.

여자성경학원은 5~6년 코스였는데 매년 1~2개월 집중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여성사역자 양성에 목표를 두고 성경과 교리 및 신학에 관한 기초교육이 주 내용이었다. 여자성경학원의 후속 교육기관으로 감리교 선교부에서는 1920년 연합여자성경학교(협성여자신학교의 전신)가 개교되었고, 미 북장로교에서는 1922년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가 설립되었다(이우정, 1985, 60-61).

이처럼 사경회에서 시작하여 여자성경학원, 나아가 여자고등성경학교로 배움의 벨트가 확장되면서 그동안 여성에게만 부과되었던 묵은 기독교 공간에서는 더 이상 덕목이 아니었다. 기독교가 마련한 배움터에서 배출된 여성들은 '말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성장의 기틀

도 세웠다.

정규학교가 드물었던 변방 지역에서는 사경회 교육의 수혜자였던 여성들이 각 지역의 교회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경반을 인도하는 지식의 전달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전삼덕은 선교사 매티 노블(1927, 10)이 평양에서 열었던 여자사경회에서 배출된 대표적인 전도부인이다. 첫 사경회부터 참석했던 전삼덕은 단 한 번의 결석 없이 “불피풍우(不避風雨)하고 졸업장을 받기까지 열심히 다녔으며” 졸업 후에도 빠지지 않고 다니며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였다. 양반 출신이었음에도 안방마님의 삶이 아니라 거리를 누비는 전도부인으로 살았던 전삼덕은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으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를 안 후로 나는 자주한 인간이 되었다”(6-13)고 고백한다. 이 고백은 종교적 의미의 거듭남만이 아니라 여성 주체로 거듭났음을 의미한다. 여성교육을 무용한 것으로 여기던 악습이 여전한 당대 문화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배우고 익혀 지식 생산자이자 전달자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전삼덕은 기독교와 근대교육을 동시에 전하였다. 가가 호호 방문하여 여성들에게 교육을 통해서만 무지몽매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설득하고, 1917년에는 평남 강서에 여아교육을 위해 승덕(崇德)학교를 세웠다. 이처럼 전삼덕의 생애와 활동은 사경회 학습자에서 지식 생산자이자 전달자로 재탄생하는 기독교여성의 전형을 보여준다.

전설적인 전도부인 주를루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통 유교가 가르쳐온 묵종의 삶을 거부했던 그녀의 신앙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교회를 다닐 때마다 남편은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녀는 기독교의 자장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주를루는 평양 사경회에 다니기 시작하여 졸업할 때까지 5년 동안 300리라는 먼 길을 걸어 다녔다(Noble, 1927, 103-105). 그녀의 열심을 본 선교사 매티 노블의 주선으로 사범과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고, 졸업 후 해주 의정학교의 한글 교사로 복무하면서 지식생산자와 지식전달자로서 맹활약을 하였다.

이렇듯 가정에 매어 있던 여성들은 기독교가 마련한 공간으로 나와 배우고 말하고 가르치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였다. 그들은 교회 성경반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지역교회에서 세운 사설 여학교 교사로 일하

며 유교적 가부장제 아래 천대받던 무당이나 하층 여성, 또 봉건적 골짜기에 갇혀 있던 여성들에게 해방의 아이콘이 되었다. 문자 습득으로 학습의 기반을 마련한 뒤 새로이 얻은 종교적·근대적 지식을 통해 여성 주체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선교 초기 서울에는 각 교단 선교부에서 세운 여학교들이 있었고 여학생들은 배울수록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싶어 했다. 그렇지만 “바느질은 여아교육에서 중요한 요소다. 내년에는 바느질 교육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한다”는 구절과 바느질, 공부, 놀이 등을 통합하였다는 장로교 연동여학교의 교과 기록을 볼 때(Doty, 1893), 초기 미션여학교의 교육은 가사에 치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90년대만 하더라도 교단별 차이는 있으나 졸업 후 여학생들은 집안일을 할 것으로 보고 이 일에 적합한 교육을 한 것이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미션여학교를 운영하던 당시 선교사들은 19~20세기 서구사회에서 참정권 운동을 주도한 페미니스트들과는 상이한 젠더관을 가졌다. 선교사들은 성별 분업과 아이 양육을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신성한 의무”로 이해하는 한편, 여성 고등교육의 목표를 “참된 가정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있어 조력자가 되고, 교사가 되며, 기숙학교의 조수가 되고, 의료사업에 있어 간호사나 조수가 되게 하려는 것”(Rothweiler, 1892, 89-92)에 두고 있었다. 이처럼 미션여학교의 교육내용은 젠더화된 현모양처 교육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가부장적 구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나 여성들의 개혁의지를 함양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그렇지만 여학생들은 현모양처 양성이라는 선교부의 교육목표와 교과 과정에 불만을 표출했다. 가령 이화학당 학생들은 한문 시간을 교과과정에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남학교와 같은 수준의 공부를 열망하였다(Marker, 1938, 10-19). 또한 현모양처 교육을 받았지만 여학교 졸업생들은 이전의 조선 여성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다. 그들은 민족문제를 고민하는 한편, 여성해방을 주창하는 잡지의 발행자, 집필자, 독자로 활동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사회적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III. 말하기 장치

이 장에서는 여성주체의 형성과정을 탐구하기 위하여 근대적 발화양식인 연설과 토론, 그리고 기독교 고유의 발화장치인 간증과 방언에 대해 고찰한다.

1. 토론과 연설

기독교의 여성 교육공간은 ‘말하는 주체’ 형성의 핵심 통로였다. 미션 여학교의 교과과정과 학생 동아리는 여학생들에게 연설의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개신교가 수용되던 개항기는 한국사회에 연설문화가 처음 도입된 시기다. 목종이 덕목이었던 한국사회에서 대중연설과 토론은 낯설고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독립협회와 배재학당의 협성회가 주도했던 연설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재미있게 듣는 이가 많이 있으며 새로 모르던 걸 배우는 일이 많다”(독립신문, 1897년 8월 26일)는 보도기사에서 대중연설회에 대한 당대의 열광적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대중연설과 토론회의 인기에 힘입어 당시 학교들은 연설과 토론 과목을 개설하였다(전영우, 1991, 29-31).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1929년부터 오랫동안 미국 기독교계에서 탁월한 연설가로 활약했던 박인덕은 이화학당 시절에 대중연설과 토론수업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법과 질문을 통해 사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동양의 여성들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회고하였다(박인덕, 2007, 52). 이는 기독교 여성 교육공간에서 근대적 발화양식인 토론방법과 연설방법을 지도하고 가르쳤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새로운 언어구사의 테크닉은 여학생들에게 침묵을 깨고 발화하도록 도움으로써 주체의식을 일깨워주었다.

기독교 여성 교육공간에서의 학생동아리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과 후 동아리활동은 토론과 연설의 재능이 발휘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1907년에 조직된 이화학당의 이문회(以文會)는 학생들의 지적·사회적 능력 개발에 목표를 둔 학생동아리다. 몇 가지의 주제를 두고 토론마당이 펼쳐졌고, 간혹 연설자를 세우기도 하였다. 학생들이 주도적으

로 모임을 이끌었지만 때로는 각계 명사들의 초청강연도 개최하여 여학생들의 사회의식 확장에 기여하였다. 토론이나 연설활동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학생들은 민족문제와 여성문제 등 사회공공의 이슈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였다. 삼일운동을 전후하여 이화학당 내에 결성된 비밀결사대는 이문회 멤버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는 토론과 연설을 통해 고양된 사회의식과 연대의식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이문회는 학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여학생들의 토론과 연설 모임으로 성장하였다. 지방의 목사들은 상경할 때마다 이문회 연설회에 들러 여성 연사들의 주장을 경청하였고, 전문학교 남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서 이화학당의 강당은 늘 가득 찼다(민숙현·박해경, 1981, 157). 한국의 1세대 여성 지도자인 박인덕과 김활란은 이문회가 탄생시킨 연설계의 스타였다.

이화칼럼지는 내가 제3회로 마쳤는데 ...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대학생 시대의 한 가지 일은 졸업식 날 내가 영어 연설하였던 것이외다. 각국 총영사들이 가득 모인 속에서 내가 졸업생 총대로 나서서 연설하던 것은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내용이었지만 열을 내어 한바탕 하였더니 모두 웃으며 박수하여 즐겁다(박인덕, 1935).

당당하게 발화하는 훈련과 개성을 발휘하는 기회를 제공한 기독교 여성 교육공간은 근대 여성연설가들을 배출하는 산실 역할을 하였다. 이화학당에서 민주적 토론방법과 웅변하는 법을 배운 여학생들은 학교 밖의 토론모임에서도 기량을 발휘하였다. 학교 밖 공론장에서는 처음부터 여성에게 연설의 기회가 제공된 것은 아니었다.

19세기 말 한국 기독교 여성의 대표적인 발화공간은 조이스회(Joyce Chapter)였다. 이화학당 교사와 학생 그리고 정동제일교회 여성교인이 주축이 된 이 모임은 앞에서 언급한 여권통문의 등장보다 한 해 앞선 1897년 10월 28일에 조직되었다. 따라서 조이스회는 한국 여성단체의 효시인 셈이다. 아펜젤러(1897. 10.30)의 일기에는 감리교 연회에서 교회 청년들의 신앙과 훈련을 목적으로 엠틀 청년회(Epworth League)와 산하 지회를 조직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10월 28일 목요일에 한국 엠틀

윗 청년회의 지방연락원인 조지 허버 존스가 워튼 분회와 조이스분회를 구성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역사적인 풍경은 조선크리스도인회보에도 보도되었다.

광무 원년 시월 삼십일 일예배에 정동 새로 지은 회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할새 … 그날 하오 칠점 반에 또 다시 모여 청년회를 실시하였는데, 배재학당 교우 중의 회원이 이십오인이요, 이화학당 여교우가 또한 청년회를 설하여 회원이 십일 인인데, 이 청년회는 회중에 전도국과 인제국과 학문국과 다정국과 통신국과 회계국이 있어…(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11.11.)

그동안 학계에서는 조이스회의 창립 일자를 1897년 10월 30일로 간주해 왔지만 아펜젤러의 일기를 미루어볼 때, 이미 그 전에 조직된 것을 일요일인 30일 주일 예배 당시 공표한 듯하다. 조이스회의 명칭은 당시 내한했던 미감리회 감독인 조이스(L. W. Joyce)의 이름을 딴 것인데(대한크리스도인회보, 1898.1.26), 이 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회의 학문국에서 주최한 토론회다. 이 토론회는 여성들을 근대적 의미의 ‘말하는 주체’로 세우는 대표적인 장치였기 때문이다.

학문국에서 진행한 근대적 말하기의 전형적 유형인 토론은 교회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차원의 인기를 얻었다. 대한크리스도인회보에서 보도된 내용을 미루어볼 때, 토론의 형식은 먼저 공론할 만한 주제를 선정한 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패널이 나와서 각각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그 후 양 패널 사이에 격렬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양측의 입장이 발표된 후에는 청중에게도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후에는 다수결에 부쳐 결론을 도출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대한크리스도인회보, 1897.12.29)

조직을 결성한 지 두 달 후, 조이스회는 정동교회의 남성지회인 워튼회(Warren chapter)와 연합토론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민주적 토론 문화는 당시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색다른 경험이었다. 조이스회와 워튼회가 주관한 토론의 공간과 청중은 기독교와 깊은 관련이 있었지만, 토론주제는 종교적인 테두리를 넘어섰다. 근대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회문제, 민족문제, 여성문제 등이 주된 토론의 내용

이었다(유동식, 1992, 93-97).

첫 토론회의 주제는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가하뇨?’였다. 곧 남녀에게 같은 학문을 가르치고 동등한 사람으로 대접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논제를 두고 토론공간이 형성된 것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남녀칠세부동석의 관행이 지배적인 터라 여성 회원들은 방청석에 있어야 했고 명망가 남성 연사들만이 무대에서 찬반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토론이 무르익자 여성들은 ‘말하는 주체’로 등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여성교육을 반대하는 측에서 “첫 인간 아담이 범죄한데는 첫 여인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남성까지 범죄를 하게 되었다”고 창세기 기사를 해석하며, 원죄를 하와의 탓 곧 여성의 잘못으로 돌린 데 있었다. 방청하던 여성들이 일순간 토론의 장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개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크리스도인회보는 이날의 사건을 “교중부인들이 말씀하기를 하와가 비록 죄를 지었으나 마리아가 아니면 예수께서 어찌 세상에 오셔서 죄를 대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며 형제들과 자매들이 일장을 토론하였더라”고 보도하였다(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12.29).

삼중지도와 남녀칠세부동석의 관행이 뿌리 깊이 남아있던 19세기 말, 토론의 승패를 떠나서 여성이 남성인사들 앞에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토론을 벌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는 획기적인 사건이다. 남성 앞에서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비합리적 결정이라도 따라야 한다는 순종의 규율을 깨고, 여성들이 공적 공간에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가부장적 허위의식을 폭로하는 발화의 시작이었다. 이후에도 조이스회에서는 수차례 연설회가 열렸던 것 같다. 감리교 기관지인 협성회 회보에는 “일전에 정동교당에서 우리나라 부녀들이 외국부녀들과 같이 연설을 하는데, 매우 유리한 말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나라 부녀들도 교육만 하면 남의 나라 부녀들만 못하지 아니할세라”(협성회 회보, 1898)며 여성의 공적 발화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서구여성들처럼 교육받을 기회가 제공된다면 한국여성들도 유려한 연설을 할 수 있다며 고무하고 있다.

조이스회가 교회에서 시작된 최초의 사회적 여성조직이라면, 교회 밖에서 전국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최초의 여성단체는 조선기독교여자청년회(YWCA)다. “구금과 압박의 깊은 구렁에서 부르짖지만 구원할만

한 여성기관이 없음을 개탄”하던 기독교 여성엘리트를 중심으로 1922년 3월 17일, 제1회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첫 모임이 시작되었다(김필레, 1956, 16-17). ‘말하는 주체’의 등장과 관련하여 주목할 지점은 이 기관의 여성 지도자들이 매년 세계YWCA 모임에 참여하여 민주적 토론진행법과 발화방법을 배우고 한국 여성조직에 적용했다는 점이다. 김필레는 인도에서 개최된 WSCF(세계기독교학생 총연맹) 총회 참석 후 그 회의의 세련된 프로그램과 진행절차, 그리고 언어선정을 둘러싼 민주적이면서도 치열했던 토론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였다(Choi, 1929, 245-247). 그리고 국제회의에서 배운 민주적 절차와 토론주제를 조선기독교여성청년회 운영에 적극 적용하였다. 또한 공적 매체에 투고하거나 인터뷰를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근대적 발화양식의 확대에 한몫을 담당하였다. 조선기독교여자청년회 회원들은 오전에는 주로 명사들을 초청하여 당면한 사회적 민족적 과제들에 대한 강연을 듣고, 오후에는 그룹 토의나 좌담회를 실시하였다(김필레, 1956.7.6). 이처럼 설립 초기부터 조선기독교여자청년회는 여성들이 공적 문제를 인식하고 토론할 수 있는 주요 공간을 제공하였다.

요컨대 기독교 여성교육 공간 및 기독교 여성조직은 당대 여성에게 근대적 발화양식을 가르쳐 줌으로써 할 말을 정확하고도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말하는 주체’ 형성의 주요 장치 역할을 하였다.

2. 간증과 방언

토론과 연설이 근대적 발화양식이라면 간증과 방언은 기독교 고유의 발화양식이다. 교회의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남성 엘리트에게만 허용된 설교나 공중기도와 달리, 간증과 방언은 성별이나 신분의 제약을 초월하는 발화양식으로 작동했다. 1903~1907년 대부흥운동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간증과 방언은 여성을 ‘말하는 주체’로 세운 대표적인 장치로 부상하였다. 이 장에서는 대부흥운동 시기에 널리 확산된 간증과 방언에 나타난 언술행위의 효과를 살핀다.

부흥운동의 광풍은 교회는 물론이고 여성 교육공간에도 거세게 불었다. 스왈렌 선교사가 미국북장로교 해외선교본부 총무 아서 브라운(A. J.

Brown)에게 쓴 편지에는 부흥운동 당시의 풍경이 잘 묘사되어 있다.

80여 명의 학생이 등록한 (평양 승의) 여자 중학교에서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흘 동안 아침 기도회 후 오전 10시에 진행하던 수업은 생략하고 대신 기도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학생들이 모인 집회는 진실한 회개가 특징이었습니다. 때때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교실을 가로질러 뛰어가 나쁘게 굴었던 친구의 손을 잡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Swallen, 1907).

이외에도 여러 신앙 집회에서 간증과 방언이 속출하였다. 선교사들은 부흥운동의 공간에서 등장한 여성들의 활발한 발화행위를 기록으로 남겼다. 1907년 평양의 한 저녁집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통제 불가능한 힘에 끌린 한 여성이 죄를 고백하였고(Moore, 1906, 116), 신버시라는 이름의 여성이 열정적으로 간증하는 것을 들은 교우들이 감동을 받아 모두 죄를 자복하였다(리원하, 1906). 189명의 여성이 겨울 사경회에서 열흘간 공부한 후 시내 중심가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간증집회에서는 두세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 서로 자신들의 새로운 경험을 나누고 싶어 했다. 아무리 곳은 날씨에도 집회에 빠진 적이 없던 어느 암천한 과부교인은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간증을 한 후 훌륭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새 삶을 살았고(Hilman, 1906, 183), 헬렌이란 이름의 여성은 엄청난 규모의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천사의 광채처럼 환하게 빛난 얼굴로 간증했다(Marker, 1907, 32).

삼중지도의 사슬이 아직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현실에서 여성들이 군중 앞에서 행하는 발화행위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박해와 고통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평양에서는 무당들의 집단개종이 있었는데 이들의 간증을 들은 한국인 목사나 선교사는 이들의 개종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했다(Noble & Jones, 1907, 9). 여성들의 적극적인 간증 행위를 막기 위해 가족이나 친척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종 이후 남편으로부터 수시로 폭력을 당한 김세지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김세지, 1927, 36).

이러한 박해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여성이 '말하는 주체'로 등장했다. 매티 노블(M. W. Noble)은 "이색적인 광경을 구경하기 위

해 모여든 군중”에게 예수의 가르침을 조리있게 연설하는 젊은 여성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72-73). 여성의 목종과 침묵이 기본값인 사회에서 여성이 군중의 주목을 받는 것도 생경한 일인데, 대중 앞에서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설파하는 행위는 웃음거리나 비난 대상이 되기 십상이었다. 그렇지만 발화하는 여성이 늘었고, 점차 그 유능함으로 인해 남성들의 존경을 받는 여성도 등장하였다. 이들이 군중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간증의 장르적 특성에서 연유한다. 간증은 자신에게 계시된 종교적 진리를 통해 사람들을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한 언술행위다.

간증은 새로운 개종자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신의 세계관이 바뀌게 된 경위를 되살피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신앙적 정체성이 새롭게 구성되기 때문이다. 간증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건과 경험, 그리고 파편화된 기억을 일관된 관점으로 수렴하여 하나의 줄거리로 엮어가는 이야기인 것이다. 인간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이해한다(Ricoeur, 2004, 471). 간증에는 ‘자기가 진술하는 이야기를 스스로 듣는 차원’과 ‘자신의 이야기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경험을 하는 차원’이 있다.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길이 없었던 여성들에게 간증 형식의 발화행위는 자신의 존엄을 확인하는 통로였다. 말없이 따르라는 목종의 계율을 깨고 여성을 ‘말하는 주체’로 호명한 대표적 언술장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간증이다.

선교사들은 일찍부터 한국 여성이 종교 경험이나 신앙적 깊이에서 남성보다 뛰어나다고 보았다. 유교 사회에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여성들은 신앙과 관련된 영역에서 남성보다 적극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기독교 공간에서도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특히 성령운동에서는 탁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여성들은 성령운동에서 방언기도나 예언을 자주 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심리적 억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체험을 맛보았다. 이때 여성들은 교사나 남성 목회자의 보조자로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영적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따라서 성령운동은 가부장적 질서를 교란하면서 성평등의 공간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이숙진, 2006).

이처럼 대부흥운동의 공간에서 여성은 자신의 언어로 간증할 수 있었

고 '아버지의 법'에 갇힌 언어로부터 자유로운 방언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대부흥운동의 시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변곡점이었지만, 특히 여성이 비일상적 시공간 안에서 '말하는 주체'가 됨으로써 가부장적 윤리에 균열을 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흥운동의 과정에서 터져 나온 방언은 해독 불능의 분절된 발성, 도돌이표마냥 반복되는 수다스러움, 말이 아닌 흐느낌과 울부짖음이었다. 전대미문의 광경을 목격한 교회 엘리트들은 이런 분위기를 수용하거나 두려하기보다는 "귀신에 사로잡혀 일어난 것"으로 이해하고 격한 거부반응을 보이며 출교하겠다는 등의 경고를 주는 적도 있었다(Noble & Jones, 1908, 8-9).

방언은 언어 너머의 언어이기에 언어의 사회성에 익숙한 이들에겐 해석 불가의 영역이다. 발화하기 전에 성찰적 과정을 거치는 (공중)기도나 간증과 달리, 방언은 이성적 작용과는 거리가 있다. 역동성과 파괴성을 지닌 방언은 공동체의 성장에 원동력이 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여 와해시키는 도화선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우려한 바울은 방언을 권장하지 않았으며(고전 13:1), 한국 기독교 지식인들도 한국교회의 반지성적 신앙 양태의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서광선, 1982, 70-82).

초기 교회 엘리트들의 적대감 표출과 경계 짓기는 방언의 역동성과 파괴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교회 안의 권위와 위계 질서의 교란을 공동체의 위기로 본다면 방언은 매우 불온한 것으로 간주된다. 방언은 일종의 해체적 언술행위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언어구사력을 중시하는 쪽에서 볼 때 방언은 '아버지의 법' 안에서 습득된 언어규칙을 익히지 못한 원초적 언어의 위험성을 지닌 것이다.

그러나 주변인의 시선에서 보면, 방언은 초월적 권위에 기대어 주체적으로 말할 권리를 행사하는 방편으로서 다른 세상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된다. 따라서 방언의 해방적 효과는 언술행위가 억압되고 있는 주변부에서 생긴다. 주변은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이라면 따라야 할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곧 '열린 공간'이자 변화를 가져올 경계지점이다. 성령운동의 공간 역시 언어 같지 않은 방언이 구사되고, 성령인지 악령인지 분별되지 않는 모호한 힘이 역동적으로 작동하며, 성별 규범이 허물어지고,

계급적 위계가 무의미해지는 열린 공간이자 변곡점이다. 요컨대 영을 분별하고, 성별 규범을 세우고, 위계를 나누는 온갖 주객대립을 넘어서 분열된 것을 아우르는 힘이 분출되는 성령운동 공간에서 여성은 방언을 통해 ‘말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이숙진, 2006, 238).

인식의 언어는 풍부한 종교적 진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기독교는 인식언어의 한계에 직면할 때마다 신비주의의 극단적 형태 속에서 새로운 표현을 모색해왔다. 이는 때로는 내면의 언어에 몰입하는 침묵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방언으로 순간적인 해방의 기쁨을 표현하기도 한다. 성령의 언어는 전심전력으로 매달리는 사람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민주적’이다(Sölle, 2007, 107-109). 성서나 성직자의 매개 없이도 신성과의 만남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기도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언어의 한계를 넘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마음은 간절하나 지배언어, 이성적으로 정돈된 언어, 사회적 문법을 학습해야 하는 남성언어에의 진입장벽을 높게 느끼는 이들에게, 방언은 문법적 틀 너머에서 오는 은사로 이해된다. 한국 기독교사에서 방언은 비성서적이며 무질서하고 종교혼합주의라는 부정적 비난을 받으면서도 ‘말하는 주체’를 세우면서 카리스마 여성 지도력을 키우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였다.

IV. 말하는 주체의 공적 발화

선교사 릴리어스 언더우드(*Underwood*)의 눈에 비친 조선의 여성들은 아름답지 못했다. 슬픔과 절망, 힘든 노동, 질병, 애정 결핍, 무지, 그리고 수줍음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된 탓이다(*Underwood*, 1984, 87). 조혼풍습으로 인해 10세 초반의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갖은 노동과 구타로 하루도 편안할 일이 없던 조선의 여성들은 자신이 겪는 고통을 팔자 탓으로 여기면서 살았다. 그러나 기독교를 접하게 되면서 집안에서조차 발언권을 갖지 못하고 남편의 지시를 따르며 살아야 했던 여성들이 달라졌다.

기독교는 수용 초기부터 전통 혼속인 축첩과 조혼을 반기독교적인 것

으로 규정하였다. 축첩한 자는 단호히 출교하고, 교인들에게 조혼과 단절하도록 강권하면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강화하였다(이숙진, 2010). 당시에는 축첩과 조혼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던 기독교 여성들이 많았다. 탁월한 전도부인이었던 전삼덕이 선교사를 찾게 된 계기도 남편의 축첩 때문이었다. 초기 여성들의 간증 증에는 조혼과 축첩으로 인해 파괴된 관계를 신앙의 힘으로 회복했다는 이야기가 많다. 전통 혼속 문제는 종교적 발화양식인 간증으로 표출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공론장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다. '말하는 주체'로 선 여성들은 축첩 반대를 피력하며 집단시위를 이끌었다. 이를 주도한 것은 YWCA를 비롯한 기독교 여성단체들이었다. 이처럼 당시 기독교 공간은 그 어느 곳보다도 인권 감수성이 높았으며 시민의식을 깨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에는 축첩과 조혼 이외에도 신여성을 중심으로 자유연애와 자유이혼에 대한 담론과 실천이 확산되었다. 자유연애를 동경한 남성 지식인은 조혼의 당사자이면서도 종종 연애소동을 일으켰다. 조혼의 구습과 자유연애의 신사조가 뒤섞이면서 탄생한 착종적 존재가 제이부인(第二婦人)이다(이숙진, 2010, 48-49). 사회적 풍기를 문란하게 한 '불온한 존재'이자 혼인의 법적 지위를 갖지 못했기에 '불법의 존재'인 이 여성들은 신문과 잡지 등의 공론장에서 자신들의 신세를 토로하곤 했다. 조선일보의 독자 상담란에 19세 여성이 “결혼 후 보니 남편에 아내가 있더라”며 고민을 토로하자, 담당 기자는 “남편의 처분을 기다리라”(조선일보, 1933. 9.2)고 답하였다. 신문물을 가장 빨리 접하는 일간지 기자도 구시대대의 윤리에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답을 한 셈이다.

그러나 기독교 여성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하였다. 기독교 신여성인 김필레는 만일 한번 실수하여 법률에 위반된 결혼임을 알았으면 잠시라도 지체할 필요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마음이 더 상하고 몸이 더 쇠하며 명예가 더 떨어지기 전에, 냉정한 두뇌로 제대로 살핀 후 용맹하게 행동할 것을 주문하면서 “남의 사정을 돌아보고 그 애원에 이끌려 주저하지 말자. 나를 구원할 자는 나 자신밖에 없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경고한다(김필레, 1935, 48-49). 당대 윤리가 삼종지도의 굴레에 고착되어 있을 때, 여성 자신을 구원할 자는 바로 여성 자신임을 일깨운 것이다. 자기 삶의 주인은 남편이나 가족, 사

회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임을 단호하게 발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 공간에서 당당한 주체의식을 갖게 된 김필레는 공공집회에서 남녀를 분리하던 커튼이 없어지자 “여성들도 혼성의 청중들을 대상으로 연설할 수 있게 된 새 세상”이 도래하였음을 선포하였다. 또한 가정에서 이전의 여성들이 무임금의 종신노예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가정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함께 의논하도록 고무시켰다(Choi, 1923, 222).

공론장에서는 근대적 권리의 하나로서 여성의 재산권에 대한 연설도 종종 행해졌다. 재산권이 오직 남자에게만 있기에, 아무리 딸이 많이 있어도 아들이 없다면 재산상속을 위해 첩을 얻는 풍조에 대해 여성주체들은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는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이 가치로 말하면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데도 남자와 여자가 분업으로 이룬 가정의 권리, 재산권, 치리권 등 모든 것이 오직 남자에게만 있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다(김할란, 1926, 3). 요컨대 여성들도 온전한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권과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을 보는 여성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자신이 당한 고통과 서러움을 토로하는 수준이었던 여성들의 발화행위는 점차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 여성문제, 민족문제에 대한 것으로 고양되었다. 여학교와 교회활동을 통해 사회적 인식이 생기면서 자신들이 겪는 고통은 불운 때문이 아니라 조혼과 축첩 등 악습이 문제의 원인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기독교 여성들은 교회 밖 공론장에서 연설과 강연, 저술 등을 통해 젠더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교회 안의 불평등한 상황에 대해서도 고발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기독교 교육공간은 여성을 ‘말하는 주체’로 세웠지만 남녀평등 사상을 고취시키는 곳은 아니었다. 오히려 남녀교인들과 교회 당국의 여성 이해는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채 가부장적 여성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영향력이 큰 남성 목회자들은 성서 속의 가부장적 구절을 인용하며 여성의 목종과 젠더의 위계화야말로 자연의 법이자 하느님의 질서라고 가르쳤다. 남녀 간의 위계구조를 불평등으로 보지 않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분위기는 당시 교회 안에 만연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여성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여

자라는 이유로 물질 및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공론장에 투고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분명히 표출하였다(정마리아, 1930).

이처럼 기독교 여성들이 여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펼쳐지자 기독교 남성들을 중심으로 반격(backlash)이 일어났다. 감리교의 김인영 목사는 “근일 부녀사회는 … 외조주의를 구가하는 도다 … 결국은 남성화를 하려하도다. 이는 천도의 역리요 인류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이우정, 1985에서 재인용)고 말했다. 요컨대 여성운동은 하늘의 뜻과 다르며,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하늘의 뜻을 따르고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여성의 가정 복귀다. 가정이야말로 부인들이 있어야 할 공간임을 강조하면서 여권운동을 단죄한 것이다.

이러한 남성중심 문화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공론장에서 여성의 고발은 이어졌다(김현숙, 2019, 32). 특히 교회 안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 전도인들은 교계신문에 투고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부당함을 공론화하였다. 정마리아(1930)는 “여전도인의 불평과 희망: 최후승리까지”라는 글에서 자신이 전도인으로 20년 동안 시골 교회에 가서 한글과 성경은 물론이고 근대적 양육법과 가정관리를 가르치고, 나아가 장례식과 결혼식에 두루 다니며 전도인의 책임을 다하였음을 밝힌다. 그런데도 여성들이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나아가 남성목회자에 비해 여성 전도인이 턱없이 부족한 사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기독교 교육공간을 통해 '말하는 주체'로 등장한 여성들은 민족운동의 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삼일운동 당시 운동의 주동자로 지목받은 여성 중 기독교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은 이 때문이다(박상진, 2019, 15). 미션여학교의 학생과 교사, 전도부인은 태극기나 독립선언서의 복사 및 전달만이 아니라 시위와 관련해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이치만, 2019, 68). 그 결과 시위 도중에 체포되거나 추후 검거된 기독교 여성이 많았다. 전설적인 전도부인으로만 기억되는 주물루도 삼일운동의 주모자로 곤혹을 치렀으며, 애국부인회의 총재로서 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던 오신도 역시 전도부인이었다. 이처럼 여성들은 기독교를 매개로 국민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였다. 선교사들

은 일본제국과의 관계 악화를 염려하여 소극적 태도를 보였지만 식민지 치하의 기독교 여성들은 민족운동에 깊이 관여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무지와 문맹의 삶을 살던 여성들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고,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는 갖은 악습에 대항하며 다양한 발화 경로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당당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V. 나가는 말

앞에서 한국 여성들이 기독교가 마련한 교육공간을 통해 '말하는 주체'로 거듭난 경로를 추적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였다. 초기 기독교는 문자교육을 수반한 성경공부, 연설과 토론으로 대변되는 근대적 발화양식, 간증과 방언으로 대변되는 기독교 고유의 발화양식 등 세 경로를 통해 여성을 '말하는 주체'로 세울 수 있었다.

첫째 경로는 농어촌 지역의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한 성경공부다. 기독교는 여자사경회, 여자성경학교, 여자고등성경학교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여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성경공부는 문자 해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글을 함께 가르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성들은 무지와 묵종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초기 한국교회의 선교와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존재로 평가되는 전도부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한 '말하는 주체'의 전형이다. 둘째 경로는 기독교계 여학교나 여성단체와 같은 제도적 공간을 매개로 등장한 연설과 토론이다. 당시 대표적인 토론공간은 이화학당 내의 학생동아리인 이문회(以文會)와 감리교 여자청년회인 조이스회(Joyce Chapter), 전국적 규모를 가진 여성단체인 YWCA였다. 미션여학교의 학생들은 대중연설과 토론 수업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법과 질문을 통해 사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조이스회에서 주최한 토론은 먼저 공론할 만한 주제를 선정한 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패널이 나와서 주장의 논리를 연설하고, 그 후 양 패널 사이에 격렬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양측의 입장이 발표된 후에는 청중에게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후에는

다수결에 부쳐 전체 결론을 도출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법을 택하였다. 학교 안에서 민주적 토론방법과 웅변하는 법을 배운 여학생들은 학교 밖의 토론모임에서도 기량을 발휘하였다. 북미 기독교 공간에서 탁월한 연설가로 활약한 박인덕과 국내에서 여성 명연설가로 이름을 날린 김활란 등은 대표적인 사례다. 여성들은 이처럼 토론과 연설을 통해 근대적 언어구사의 테크닉을 배우는 과정에서 말하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

셋째 경로는 기독교 교유의 발화양식인 간증과 방언이다. 남성 엘리트에게만 허용되었던 설교나 공중기도와 달리, 간증과 방언은 성별이나 신분의 제약을 초월하는 발화양식이다. 특히 부흥운동의 공간에서 여성들은 적극적인 간증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엄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앙적 정체성이 강화되었다. 일종의 해체적 언술행위인 방언도 남성지배 문화에서 고통받고 소외된 여성들에게 해방의 언어로 기능하였다. 인식의 언어 너머의 원초적 언어인 방언은 초월적 권위에 기대어 말할 권리를 행사하는 장치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탄생한 말하는 주체는 점차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 여성문제, 민족문제로 고양되었다. 선교사들이 한국여성에게 근대적 여성의식을 가르쳐준 것은 아니었다. 교육선교사들은 성별 분업과 아이 양육을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신성한 의무로 믿고 현모양처 교육에 목표를 둘 정도로 가부장적 구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마련한 교육공간을 통과했던 여성들은 교육권과 재산권을 주장하는 여성주체로 거듭났다. 여성들이 겪는 고통이 운명이나 하늘의 뜻이 아니라 사회구조나 오랜 악습이 원인임을 자각하는 여성들이 늘었다. 그 과정에서 근대적 권리를 주장하고, 희생과 봉사 개념으로 묵인되어왔던 교회 안에서의 성차별에 대해서도 공론화하였다. 삼일운동에서 체포된 여성 중 절대적으로 다수였던 기독교여성은 민족운동의 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19세기 말에 수용된 기독교는 이처럼 여성을 말하는 주체로 세웠지만 오늘날 기독교공간은 성차별적 공간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교계 한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교회출석 기간이 짧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높은 반면,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여성 의식이 약해지고 비민주적인 가치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이 법적 제도적으

로 보장되고 여러 전문분야에서 여성들이 도약하는 오늘날, 여성의 잠재력이나 다양한 은사를 사장시키는 교회문화가 변화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를 증명하듯 젊은 여성들의 교회 이탈현상은 심각하다.

130여 년 전, 한국여성의 삶을 고양시켰던 초기 기독교 공간을 '말하는 주체의 탄생'이라는 렌즈로 조망하는 일은 기존의 근대여성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동시에 오늘날 기독교 교육공간을 성찰하는데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재인 외 (2001). **한국여성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필레 (1973). **이상을 향하여 다름질쳤던 격동의 시대, 회상의 확장시절:여류21인 집**. 서울: 신서출판사.
- 김필레 (1956.7) **하령회의 유래**. 한국YWCA.
- 김필레 (1977.1), **YWCA 인물사 김필레편: 일본유학이 y와의 인연 가져와**. 한국YWCA.
- 김필레 (1935). **성교육**. 경성: 조선기독교서회.
- 김필레 (1926.10.16). **여권문제에서 살길을 찾자**. 동아일보.
- 김현숙 (2019). 근대초기 기독교 여성과 기독교적 여성교육. **기독교교육논총**, 59, 17-58.
- 내보 (1898.1.1.). **협성회회보(제일권일호)**.
- 리원하 (1906.3.15). **김화디경터 순환서 부흥회**. 그리스도 신문.
- 민숙현·박해경 (1981). **한가람 봄바람예: 梨花100年野史**. 서울: 지인사.
- 박상진 (2019). 3.1운동에 있어서 기독교학교의 역할과 오늘날의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58, 11-51.
- 박인덕 (1935.3.1). **青春을 앗기는 佳人哀詞-그리운 梨花칼레지여**. **삼천리**, 7(3).
- 박인덕 (2007). **9월 원숭이**. 김세환, 유제관 역. 서울: 인덕대학. (원저 1954 출판).
- 서광선 외 (1982).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현상과 구조**. 서울: 대화출판사.
- 유동식 (1992). **정동제일교회의 역사 1885-1990**.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 윤정란 (2019). 한국근대여성운동의 역사적 기원지-‘여권통문’ 결의장소 발굴. **여성과 역사**, 30, 33-78
- 이숙인 (2005).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 이숙진 (2006). **한국기독교와 여성정체성**. 서울: 한들.
- 이숙진 (2006). 방언과 간증: 성령운동의 젠더정치학. **종교문화비평**, 10, 220-245.
- 이숙진 (2010). 초기 기독교의 혼인담론. **한국 기독교와 역사**, 32, 35-62.
- 이연옥 (1998). **여전도회 100년사**. 서울: 신앙과 지성사.
- 이우정 (1985). **한국 기독교 여성백년의 발자취**. 서울: 민중사.
- 이치만 (2019). 삼일운동과 기독교 여성의 역할. **기독교교육논총**, 59, 59-91.
- 전영우 (1991). **한국근대토론의 사적연구**. 서울: 일지사.
- 정동 새 회당에서 행한 일 (1897.12.29). 대한크리스도인회보.
- 정마리아 (1930.1.1). **여전도인의 불평과 희망: 최후승리까지**. 기독교신보.
- 조은하 (2007). 사경회와 기독교 여성교육. **기독교교육논총**, 14, 189-220.
- Blair, H. (1911, Nov). Womens work in kang kai. *The Korea Mission Field*, 12.
- Blare, W. (1946). Bible study class and revivals, Gold in korea. H.M.I.

Topeka Kansas

- Cooper, K. (1927). Woman's work in wonsan, in southern methodism in Korea. In J. S. Ryang (Ed.). *Seoul: Board of Missions, Korea Annual Conferenc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 Doty, S. (1893). *Girls's school report, korea reports, korea letters and correspondence.* Records of the PCUSA.
- Hilman, M. R. (1906, August). A wonderful week. *The Korea Mission Field.*
- Marker, J. (1907). *Report of the day schools and evangelistic work of the chemulpo an hai ju circuits.* Report of Annual Session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sist Episcopal Church.
- Moore, S. F. (1906, April). The revival in seoul. *The Korea Mission Field,*
- Choi, P. L. (1923, November). The developement of korean Women during the Past Ten Years. *The Korea Mission Field,* 19.
- Choi, P. L. (1929, December). At conference in India. *The Korea Mission Field,* 2.
- Noble, M. W. (1934). *Reminiscences of early christians in korea, in Charles A. Sauer, Within the Gate.* Seoul: The Korea Methodist News Service.
- Noble, M. W. (1927). **승리의 생활.** 경성: 조선야소교서회.
- Noble, W., & Jones, G. H. (1907) *The religious awakening of korea: An Account of the revival in korean churches in 1907.*
- Noble, W., & Jones, G. H. (1908). *The religious awakening: An account of the revival in korean churches in 1907.* New York: Board of the Foreign Missions, MEC.
- Report of Educational Committee (1893). *Korea reports, korea letters and correspondence.* Records of the PCUSA.
- Ricoeur. P. (2004). **시간과 이야기 3: 이야기된 시간.** 김한식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원저 1985 출판).
- Rothweiler, L. C. (1892, March). What shall we teach in our girl's schools?, *The Korean Repository.*
- Sölle, D. (2007). **신비와 저항.** 정미현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원저 2001 출판)
- Swallen, W. L. (1907 May). God's work of grace in pyeng yang Classes. *Korea Mission Field,* 3.
- Swallen, W. L (1907. January 18) Letter to A. J. Brown, KMPCUSA, Microfilm reel #281, vol. 237
- Talmage. E. E. (1932). *O.L.S.P.M.K.* Kwangju, Korea.
- Underwood. L. H. (1984). **언더우드 부인의 조선생활.** 김철 역. 뿌리깊은 나무.

(원저 1908 출판)

Underwood. H. G. (1911. October). Bible translating. *The Korea Mission Field*, 7.

Abstract

The Making of Speaking Subject in Early Korean Protestantism: Focused on the Educational Spaces for Women

Sookjin Lee

Lecturer,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nature of the making of speaking subject in early Korean Protestantism, focusing on the educational spaces for women. Traditional women could become a speaking subject through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provided by Protestantism in modern Korea. Especially three kinds of educational space played the crucial role of making women a speaking subject.

The first was Bible class established for women in rural areas. Since most Korean women were unable to read and write, Protestant churches taught them Hangeul[Korean alphabet] before teaching the Bible. Korean women studied the Bible in Bible class, Women's Bible School, and Women's High Bible School. Through this education, traditional women were liberated from the world of ignorance and obedience, and then become a speaking subject.

The second was speeches and discussions that have emerged in institutional spaces such as mission schools for girls and women's organizations. Students at mission school were able to learn how to express their opinions by way of public speaking and discussion classes. Women were able to become speaking subjects in the process of learning such techniques of modern language. At that time, representative discussion spaces were Lee Mun-hoe, Joyce Chapter, and YWCA.

The third was testimony and dialect. Unlike sermons and public prayers, which were only allowed to male elites, testimony and dialectics are a form of speech that transcends gender or status

constraints. Especially in the space of the revival movement, women confirmed their dignity through active testimony, and their religious identity was strengthened in the process. Dialect also served as the language of liberation for women suffered and alienated from male-dominant culture. Dialect is a device that exercises the right to speak against transcendental authority.

Furthermore, in Protestantism of early modern Korea, the speaking subject's act of speech was elevated beyond personal matters to social issues, women's issues, and ethnic issues.

《 **Keywords** 》

Speaking subject, Early korean protestantism, Yi-mun-hoe, Joyce chapter, Ywca, Public speaking, Testimony, Dialect.

- 투고접수일 : 2020년 05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06월 04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06월 25일